



#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국의 산업보건에

#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장 차 봉 석

**안녕하십니까?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 여러분!**

이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병신년(丙申年)은 말쑥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새해가 밝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봄에는 더 기분 좋고 멋진 일들이 있기를 믿어봅니다.

새해 정유년은 동물로 보면 닭띠의 해로서 특히 붉은, 밝은 닭의 해라 합니다. 닭은 새로운 날의 시작인 새벽을 알리는 신통력을 가진 명석하고 맵시 있고 부지런하며 잡귀를 물리치는 사회성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뛰어난 밝은 닭의 해에는 대단한 열정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한국의 산업

보건계와 협회 발전에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고대로 농업국가로 내려오던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1963년 11월 22일에 최영태 박사를 회장으로, 조규상 박사를 부회장으로 또 전국 굴지의 기업의 부속병원장 12인(이사 10인, 감사 2인)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설립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권이 인정되지 못하던 시절에 산업보건의 싹을 파종하였습니다. 60여년이 흐르는 시간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보건 관련 정책 개발과 기관 설립, 관련 학회 창립 등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목적은 창립 당시와는 다른 거대 조직이 되어 다양화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사업” 외에 14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사업의 심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수 건강진단 하면 바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떠오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근로자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집중화된 분야에서 새벽을 알리는 밝은 닭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건강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협회의 직원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